

당신과 나의 표지석 문구가 독특한 느티나무

<

덕유산 자락의 덕유마을에 있는 보호수(무주-9-8-3-8) 느티나무는 등산로가 시작되는 들머리의 길가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5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4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2m 가량이며, 우산을 펼친 모양처럼 보인다. 원줄기는 높이 2.5cm 정도에서 우산살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다시 가지 줄기를 많이 내어 풍성한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주변은 석축으로 크게 둘러져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덕유산을 찾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나무이기에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느티나무는 백련사 방향 산행의 시작 지점에 있으며, 구천동의 어사길을 향하는 초입부에 자리하고 있고, 관광특구에서도 멀지 않으므로 접근이 용이하다. 느티나무 밑에 표지석(표지판)이 있는데, 다른

보호수 안내의 글 내용과 약간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다. 그대로 적어 보면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 속에서도 오직 당신을 위해 의연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곁에서 억겁을 살으렵니다.'이다. 덕유산(德裕山)은 덕이 넉넉한 산이다. 이성계가 덕유산에서 무술 수련을 할 때에 맹수들이 득실거렸음에도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덕이 넉넉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구천동은 옛날 성불공자 구천인(九千人)이 살았다는 설이 전해지고, 어사 박문수가 이 고을에 구(具)과 천(千)씨의 큰 다툼을 해결하였다고 하여 구천동(具千洞)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설이 있는데, 현재는 구천동(九千洞)이라 부르고 있다.

